

장수군, 가야~조선시대 유물들 발견

대적골 제철유적 발굴조사서 조선시대 건물지 1동·가야토기편 추가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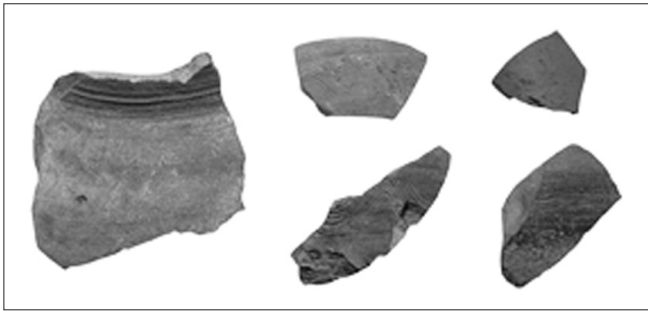
장수군은 장계면에 위치한 대적골 제철유적 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건물지 1동과 가야토기편이 추가로 출토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적골 제철유적 발굴조사는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장수군(군수 최훈식)의 지원으로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이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로 기존 조사된 다 구역의 계곡부 북쪽에서 석축과 석설이 확인됐으며 건물지 1동과 단야 시설 7기가 확인됐다. 또한 내부에서는 송풍구편, 유출재, 단조바편 등이 출토됐다.

라 구역에서는 후백제 건물터 주변 탐색 트렌치 조사를 통해 하층 안정된 층위에서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토기 편이 출토돼 다시 한번 그 역사성을 입증했다.

그동안 라 구역에서는 후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청동제 범종이 전라북도 최초로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었다. 대적골은 큰 도적이 살아 무서운 지



가야토기편

역이라고 그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주민들의 전언이 있었으나, 총 6차례에 걸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결과 2km 내외의 일관 제철유적으로 밝혀져 큰 도적이 아닌 큰 보물을 쌓아놓았던 곳으로 추측되고 있다.

전북 동부 백두대간에 자리한 대적골 제철유적은 총 범위 중 10% 이하만 학술연구가 진행돼 앞으로도 유적

의 명확한 성격규명을 위해 체계적 학술연구가 필요하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가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아우르는 1,500년의 역사으로 향후 체계적 관리와 보존방안을 마련, 주변 육십령 가야비움터, 산립정원 사업 등과 연계해나갈 계획"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시장 토요일화장터 개장

11월까지 총 10회 진행

진안군은 19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6월~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안고원시장 토요일화장터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2022.1~2023.12.)추진 2년차를 맞이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지난 17일 열린 첫 토요일화장터에서는 체험프로그램 6가지(마카롱 만들기, 라탄 연필꽂이 만들기, 스프링 파

우치 만들기, 모기퇴치 지비츠 팔찌 만들기, 차량용 방향제 만들기, 수제청 만들기)와 플라마켓 5개소(장식품 및 산약초, 리본공예품, 꽃, 마크리메, 티매트 가방 등)가 선을 보이며 자녀를 동반한 학부모 등 200여명이 장보기와 체험행사를 동시에 즐겼다.

참여 방법은 사전 신청 없이 접수대에서 체험비 5000원을 내고 현장 신청으로 진행되며 체험 후에는 플라마켓,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5천원 쿠폰으로 돌려줘 사실상 무료로 체험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토요일화장터는 오는 7월 8



일 열리며 이후에는 7월 22일, 8월 12일과 26일, 9월 22일~24일, 10월 21일, 1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사업을 추진한 엄우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은 "고객과 시장 상인이 함께 행복한 토요일화장터가 돼 기쁘다"며 "많은 사람들이 진안고원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더 다양한 체험과 상품을 준비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보건소 직원 대상 재난대응 강화 교육

진안군은 19일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군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상황을 가장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최근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의 의외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보건소 재난의료지원 인력인 신속대응반의 역할에 대한 중증도 분류(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와 사상자 이송 및

응급처치 등 상황별 정확한 인지를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보건소 직원에 대상으로 재난 상황을 가장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신속대응반이란 재난 등의 발생 시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장이 평상시에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을 평상시에 구성하여 다수사상자 10인 이상이 발생하는 재난 시에 운영하는 현장 활동팀을 말한다.

훈련은 전북대학교 윤재철 응급의학과 교수 등 재난거점병원인 전북대학교 응급의료지원팀과 국립중앙의료원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이론 교육과 지진으로 인한 학교 건물 붕괴 상황을 가정하여 대량 사상자 사고 현장에 대한 가상훈련을 실시했다.

보건소 송미경 소장은 "신속대응반 재난대응체계 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양호'

무주군, 국토부 추진실적 평가서 3년 연속 우수

무주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 도시재생뉴딜사업 1차(4월)·2차(6월) 추진실적 평가에서 '무주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설천면 도시재생뉴딜사업, 무풍면 도시재생인정사업, 무주읍 도시재생인정사업' 등 대상 사업 4개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설천 눈꽃대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특히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매주(1회) 관련 기관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정협의회(행정, 한국농어촌공사,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각 현장지원센터)를 개최해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왔던 점 등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1년 '양호', 2022년 '양호'에 이은 성과로 향후 신규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는 등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평가한 1차 평가 대상지는 전국 342곳(전북 28곳)으로 전북지역은 무주군 2개 사업(무주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설천면 도시재생뉴딜사업)대상지를 포함한 11곳이 '양호', 13곳이 '보통', 3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으며 1곳은 '매우미흡' 평가를 받았다.

인정사업을 평가한 2차에서는 전국 146곳의 사업지가 자율을 겨룬 가운데 무주군(무풍면 인정사업, 무주읍 인정사업)을 포함한 전북 지역은 3곳이 '양호', 8곳이 '보통', 1곳이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4개 사업장이 모두 '양호' 등급을 얻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의 정책과 지원이 함께 일궈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도 부탁을 한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드림스타트 가정 위생방역 프로그램 진행

장수군은 드림스타트 가정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잠마찰 아동들의 식중독 예방과 야드피 피부염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드림스타트 30가정을 대상으로 가정 위생방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군은 국내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해충방제 전문업체를 통해 쥐와 바퀴, 개미, 진드기 등 각종 해충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쉽게 오염되기 쉬운 세탁조 소독까지 실시했다.

또한 방역 전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거위생교육을 실시해 쾌적한 가정 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가정별 일정기간을 두고 일회성이 아닌 2회에 걸쳐 소독을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12회 진안홍삼배 전국배드민턴대회 성료

지난 17~18일까지 2일간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서 열린 제12회 진안홍삼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3개부(남북·여북·혼북)에 동호인 최강자부인 준자강(연령제한 없음)과 연령에 따라 50대, 45대, 40대, 20·30대로 나누어 치러졌으며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 800여명이 참가하여 이틀간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자웅을 겨뤘다.

개최지인 진안군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일부 선전해 여북 50대 B급에 참가한 진안클럽의 송연민, 김진숙이 3위를, 남북 45대 C급에 진안클럽의 성준



영, 강오길이가 2위를 차지했다.

군은 대회기간동안 전국 각지에서 선수, 임원, 관람객까지 약 800여명이 진안을 방문하여 진안의 맛과 멋을 즐기고 가면서 대회와 연계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교육

진안군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관영)는 지난 17일 진안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진안군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최은주 센터장과 2명을 초청해 성행동문제, 아동학대, 응급처치 및 장애인 인식개선 등 교육으로 신뢰받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교육의 장으로 마련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진안군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게 아이들을 보살피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경찰서, 결혼식 빈집 털이 절도 피의자 검거

무주경찰서(서장 유봉현)는 최근 결혼식 광고를 보고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A모(57)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2023년 2월경 무주군 관내 결혼식장으로 빈 가정집을 골라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경범죄, 전북 무주 등 4회에 걸쳐 총 1,000만원 상당을 귀중품을 훔쳤다.

형사팀에서는 "결혼식을 다녀와 보니, 안방 서랍장 속에 보관해둔 현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한 이후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피의자의 잠입 시도 장면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용인 소재 피의자 주거지 주변에 잠복하여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한,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범행 당시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현금만 사용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무주군 진역에 설치된 CCTV를 수일동안 세밀히 분석하는등 끈질긴 노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봉현 무주경찰서장은 "앞으로 여름휴가철 및 가족 행사 등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는 계절에 현금이나 귀중품은 가능한 은행에 맡기고, 옷장서랍, 화장대, 찬장등에 보관하지 않는 것도 예방책"이라며 빈집 절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